|  |  |
| --- | --- |
| EMB0000107c2531 | **멋쟁이사자처럼 4기** |
| **DGUlion 지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 김자영 | | | 생년월일 | | 1995-07-22 | [Kelly Jayoung Kim's photo.](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153599968083542&set=a.461808133541.252005.735258541&type=3) | |
| 나 이 | | 22세 | | | 성 별 | | 여 |
| 학 과 | | 경영학과 | | | 학년 / 학번  (2016년도 기준) | | 3/14 |
| 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93-49 202호 | | | | | | | |
| 이메일 | [Jayoung722@naver.com](mailto:Jayoung722@naver.com) | | | | | 휴 대 폰 | 010-6307-2413 | |
| 동아리 혹은 각종 대외활동 ※ 없으시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 | | | | | |
| 단체명 | | 활동기간 | | | | 활동내용 | | | 현재 활동여부 |
| 하프타임 | | 2014.03 | ~ | 2015.12 | | 학과 내 소풍 소모임 | | | N |
| 뭉게구름 | | 2015.09 | ~ | 2015.12 | | 중앙 동아리, 창작음악(드럼) | | | N |
| 대검찰청 | | 2014.08 | ~ | 2014.08 | | 국제협력단 소속 인턴연구관 | | | N |
| 자신에게 선택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세요. | | | | | | | | | |
| 개발 경험 | | N | | | | | | | |
| 배워 본  프로그래밍 언어 | | C언어 | | | | | 다룰 수 있는  디자인 툴 | 없음 | |

|  |
| --- |
|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멋쟁이사자처럼 4기에 지원하게 된 경영학과 14학번 김자영입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를 크게 감동시킬 말주변은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제 자신,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또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웹 서비스에 대하여 열정이 드러날 수 있게끔 노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체에 잘 귀속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제가 하는 활동을 통해 저를 정의하려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모의유엔에 대외활동에 꽂혀 2년간 10번이 넘는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모의유엔은 단순 참가와 의장, 사무국으로 역할이 나누어 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대사로서 참가만 하다가 대회 몇 달 전부터 사전 조사를 하고 행사를 계획하는 의장과 사무국역할에도 7번 임했습니다. 모든 대회에 저의 열정을 쏟아 부었고 나름 그 분야에서는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https://scontent-icn1-1.xx.fbcdn.net/hphotos-xpa1/v/t1.0-9/17771_422106104573732_57955357_n.jpg?oh=e9ba3616d57e1c50a280c0120d7b2feb&oe=574DC929https://scontent-icn1-1.xx.fbcdn.net/hphotos-xaf1/t31.0-8/1093987_203265176506487_1879795814_o.jpg  https://scontent-icn1-1.xx.fbcdn.net/hphotos-xaf1/v/t1.0-9/486058_398788150215342_1578259038_n.jpg?oh=51bb98cdbd39799813d271aa07506f77&oe=5768FB79https://scontent-icn1-1.xx.fbcdn.net/hphotos-xfa1/v/t1.0-9/398135_320960821358061_941472770_n.jpg?oh=064af808b335306fcb0e53a77c7792b5&oe=576A32C1  GLISMUN7, MUNCCC, GC, KMUN 등 국내 유명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Kelly Jayoung Kim's photo.](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153600072348542&set=pcb.10153600072833542&type=3)또 대학교에 와서는 학생회 활동을 통해 단체 내에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 했습니다. 매 주 회의에서 축제, 엠티, OT등 행사를 기획했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물론 일도 잘 해야겠지만 사람관계도 단체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시간에 늦지 않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책임감과 편하고 또 배려심 있는 선배, 후배로 비춰지며 14년도에 참가자가 15명 남짓했던 소모임을 15년도에 60명이 넘게 지원한 소모임이 되게 했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튀는 사람은 아니지만 책임감 있는 모습과 인간적인 면모로 제가 속한 단체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경영학과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플이나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탄생해 나가고 있고 트렌드 자체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모든 학생이 문과인 학교에서 정보과학이라고 C언어를 배우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생각을 하다가도 하염없이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고 시도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 좋은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이탈리아 토리노로 인원을 선발하여 인턴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추가선발에 합격하여 이번 1월 I3P라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그곳에 있는 스타트업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I3P는 토리노공대와 연계된 기관이기 때문에 IT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주로 상주해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 인턴으로 아시아시장 조사와 분석이 주 업무였지만 그 곳에 있는 동안 영롱한 맥북을 들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고 또 아이디어와 만나 Business Opportunity까지 만난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또 Gamejam이라는 테마로 해커톤을 개최해서 구경을 했었는데 (참가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탈리아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만한 캐리어를 들고 그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48시간동안 대회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며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언젠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열 때 주방장만 믿고 개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요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실제로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는 성공적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창업을 한다면 어플을 기반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또 그를 위해서는 저도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어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동기도 컴퓨터공학과를 복수전공하며 스타트업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멋쟁이사자처럼을 통해 저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또 실제로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이탈리아로 가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목포에서 한 달간 지냈는데요,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 다 2G폰을 쓰시다가 할머니께서 최근 스마트폰으로 바꾸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은 살 때나 대리점에서 좀 알려주고 따로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아서, 또 서울도 아니고 지방 쪽이라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전화만 사용하시고 문자도 잘 못 보내셨습니다. 키보드에 익숙하시지 않으시고 보내기를 누르는 것도 깜빡 하셔서 임시 보관함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었고 뒤로 버튼도 사용하지 못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못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음성인식을 알려드렸는데 꽤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서 할머니가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인식 버튼도 그렇고, 보내기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IU가 새롭게 개발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효도폰이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은 점점 2G폰이 없어져 가는 추세이고 어떤 기기로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정이 되면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확한 디자인의 아웃라인은 없지만 이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 어플” “할머니 필수 어플” 등의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을 해 본 결과 딱히 그럴 싸 한 어플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장 수요가 젊은 세대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는 아니더라도 다른 핸드폰 처럼이라도 쓸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학기를 마지막으로 학생회활동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3학년, 남보다는 내 자신에 더 집중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멋쟁이사자처럼을 통해 모든 교육을 자기발전이라고 여기며 성실히 임하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이 뿌듯해 할 만 한 결실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근처에 살고 시간표도 망쳐서 주5일 오전 수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멋쟁이사자처럼을 위해 쓸 시간이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아래의 문항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유 형식, 자유 분량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열정을 뽐내주세요.  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2. 자신이 만들어보고 싶은 웹 서비스  3. ‘멋쟁이 사자처럼’에 대한 열정  .  .  .   |  |  |  | | --- | --- | --- | | { | 가장 긴 지원서는 아주 촘촘한 글씨로 40장입니다. | } | | 가장 특이한 형식의 지원서는 보이스메일 입니다. | | (by 3기 지원자 통계) |   ※전송 전에 다른 컴퓨터에서 꼭 한번 확인하셔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 멋쟁이 사자처럼 지원 시 필수 확인사항  1. 지원자는 아래의 지원일정 안내를 확인하고 일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2. 멋쟁이 사자처럼 지원 마감 시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3. 면접 대상자는 면접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4. 합격자는 앞으로의 멋쟁이 사자처럼 활동에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5. 면접 합격자께서는 3/18(금) 동국대학교 합격자 사전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6. 메일제목은 “동국대학교\_멋쟁이사자처럼\_4기\_홍길동\_지원자” 로 통일해 주셔야 합니다.  7. 지원서는 “동국대학교\_멋쟁이사자처럼\_4기\_홍길동\_지원서”  자유 형식의 첨부파일은 “동국대학교\_멋쟁이사자처럼\_4기\_홍길동\_첨부파일”로 통일해 주셔야 합니다.  8. 면접 대상자에 한해서만 면접 시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류 합격자 발표 시,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  |  | | --- | --- | | 멋쟁이 사자처럼 지원일정 안내 | | | · 3/2(수) ~ 3/11(금) | 서류 접수기간 | | · 3/13(일)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 · 3/14(월) ~ 3/15(화) | 면접 | | · 3/17(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 · 3/18(금) | (동국대학교) 합격자 사전 모임 | | · 3/19(토) | (전체) 멋쟁이 사자처럼 오프닝 데이 & 엠티 |   지원자 김자영은(는) 상기 유의사항과 일정에 동의합니다. |